

가정에배 · 구역에배 교재

12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에배 사무엘상 · 에베소서 · 사무엘하
구역에배
남성구역에배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무엘상 · 에베소서 · 사무엘하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시 간



환한 대낮에 세상을 비추는
저 밝은 태양보다
어스름한 저녁
서쪽 하늘에 걸려 있는 저녁 해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심은
하루에도 끝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종말이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자상한 배려가 아닐는지요?

한 해 단력의 마지막 장을 바라보면서도
세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그 끝 후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히 9:27).
그리고 옛날 시편 기자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시 39:4).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어느덧 2003년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겸손히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에베소서 서론

바울의 옥중 서신인 본서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한 개요(概要)라고 널리 인정을 받는 중요한 책이다.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가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설명한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영광을 '장엄하게' 설명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묘하신 경륜에 의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바 되었고 영원한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장엄하게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복음의 순수한 진리와 영광스러운 진수를 배우고 깨닫는 데 있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하게 읽고 공부해야 할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첫째로, 에베소서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먼저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내용, 곧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훈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서를 읽도록 하자. 본서에서 바울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을 설명하고(1장), 그러한 구원을 얻은 성도의 본질과 영광을 설명한 후에(2,3장), 비로소 그러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교훈을 말한다. 바울이 이런 순서를 취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바울의 자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삶에 대한 교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언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충분히 새겨지지 않으면, 삶에 대한 교훈이 아무리 깊고 감명 깊어도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않고서는, 또한 구원 얻은 성도의 본질과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서를 읽을 때,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을 스쳐 지나가듯 읽지 말도록 하자. 다 아는 내용이라고 선불리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오히려 시간이 걸려도 이 부분을 마음 깊이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충분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자.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도 바울이 보았던 복음의 영광과 한없는 은혜로움을 맛보도록 하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둘째로, 바울이 신자의 구원을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도록 하자. 흔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너무나 적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이 처음 죄를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과 그 이후에 계속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알 뿐이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영원 전'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밝히 말해 준다. 또 바울은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아 있는 존재임을 말해 준다. 이 외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이며,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이다. 아, 우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 구하며 에베소서를 정성들여 읽도록 하자.

내용분해

1. 놀라운 구원과 성도의 지위 1:1-3:21

- (1)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1:1-14
- (2)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는 기도 1:15-23
- (3) 구원 얻은 성도의 신분과 지위 2:1-3:13
- (4)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 3:14-21

2. 성도의 생활 4:1-6:24

- (1) 성도의 교회 생활 4:1-16
- (2) 성도의 세 생활 4:17-5:21
- (3) 성도의 가정 및 사회생활 5:22-6:9
- (4) 성도의 영적 싸움 6:10-24

본 장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집요한 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그를 위해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1-11절).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영원치 변치 않는 우정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였습니다(12-23절). 월삭 때에 사울과 같이 식사를 하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간청하였으나 오히려 사울에 의해 죽음을 당할 뻔하고 이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였습니다(24-34절). 다음날 요나단은 다윗을 몰래 만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을 전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슬픔 속에 작별을 고하였습니다(35-42절).

이처럼 둘 사이의 우정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만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유익과 혈연적인 정을 초월하여 그 우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신실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된 본성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에만 성도간의 교제와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악 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 장은 다윗이 사울의 미움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떠나 타국으로 유랑의 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좁으로 도망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자신들 일행을 위해 먹을 것을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주어 허기를 면케 하였습니다(1-6절). 그 때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자신이 과거에 죽였던 골리앗의 검을 얻었습니다(7-9절). 그리고 마침 그 곳에 사울의 신하가 오자 다윗은 멀리 가드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일부러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여 가드 왕 아기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10-15절). 이처럼 다윗이 겪은 수많은 고통은 결국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드 땅에까지 도망하였지만 거기서도 안식을 찾지는 못 하였습니다. 오히려 가드 왕 아기스로 인해 위기를 맞고 미치광이 행세를 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안전한 것 같아도 죄악 된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품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 다윗의 고난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본 장은 특히 이러한 고난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쳤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드에서 빠져 나온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자 사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하였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1-5절).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의 행적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신하들을 크게 질책하였습니다(6-10절).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곁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겨우 살아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하였습니다(11-23절).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방랑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를 겸손케 만드시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윗은 그의 방랑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으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5절).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생각, 또는 상식적인 판단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손해와 고난의 길임이 분명한 때에라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단순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손해와 고난의 길이 분명한 때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를 구한 다윗이(1-5절)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십 황무지로 도망한 다윗은 다시 십 사람의 밀고로 쫓기게 됩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쫓기게 된 다윗은 십 사람에게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편 54편에는 사람으로부터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십 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로 피하지만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블레셋의 급작스러운 공격으로 다윗은 다시 사울의 손으로부터 놓여집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인도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6-29절). 다윗은 그곳을 '셀라하마느곳'(피난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닥친 환난은 참으로 위급하고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한 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끄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도움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파멸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시59:16).

기도 제목 / 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돌아서야 했던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후 다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엔게디 황무지에서는 지금까지 쫓기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해치지는 않았습니다(1-7절). 이로써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증거해 보이고(8-15절) 감동을 받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16-22절).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이었을 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미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이 사건으로 명백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과에 대한 대가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 후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벤 것조차 불편해 했습니다(5절). 다윗은 신앙의 중심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는 이유로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던 다윗의 행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적 중 엔게디 동굴사건(24장)과 하길라 기습사건(26장) 사이에 발생한 삽화적인 사건으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소개합니다. 이 기사の内容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나발의 거만한 태도에 분노한 다윗이 나발과 그에게 속한 자를 모두 죽이려고 함(9-13절),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황급히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 남편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함(14-31절),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32-35절), 그리고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근황(36-44절)입니다.

특히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26절).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단순히 분노한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 말입니다. 이 사건이 지니는 중요성은 다윗이 일시적인 분노로 인하여 그의 소명과 명예에 영원한 손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고비를 지혜로운 여인의 충고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신정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시139:1-5절).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섭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약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영적분별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엔게디 동굴 사건으로 다윗과 화해했던 사울은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장은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는 다윗이 이번에도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십 사람의 밀고를 받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여 하길라 산에 진 쳤습니다(1-5절). 사울의 군대가 하길라 산에 진 쳤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장막에 침입하였고, 다시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비새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니 그분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6-12절). 무사히 사울의 진영을 빠져 나온 다윗은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하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화해를 청합니다(13-25절).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 하리라...’ (25절)는 축복을 받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죽이려 한 사울이었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음을 확실히 깨닫고 승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믿는 자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 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많은 연단을 받으며 인내했습니다. 이 연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대적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서도 신하신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전반부(1-7절)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찾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지로 선택한 이유는 블레셋이 당시 사울과 적대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돌아오기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생각은 신앙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단지 생존의 논리에서 내린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체험했지만 환난의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절망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시 138:7).

또한 본 장의 후반부(8-12절)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활약하면서 블레셋 왕(아기스)에게 점차 신임을 얻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거하는 동안 그술 및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겐 지역의 남방을 공격했다고 허위 보고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진 다윗은 결국 위선의 탈을 쓰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의 신임을 얻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뿌리 깊은 옛 사람의 성품, 즉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롬 13:14).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환난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3절). 앞서 언급된 사무엘의 죽음(삼상 25:1)을 재차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은 사무엘 사후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과 위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레 19:31)을 준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끌어내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사울은 자신이 몰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47절). 그 이유는 당시에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가증한 행위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다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롬 12:12).

한편,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패전과 아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는 말과 더욱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양되리라는 경고를 듣습니다(15-19절).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20-21절).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도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설사 범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실패에 빠졌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와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요일 1:9). 그리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전반부(1-5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지 말아야 할 이방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삼상27장).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 명령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출정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 왕의 요청을 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일에 갈등하며 참여하는 다윗의 행동은 오늘날 세상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시 97:10).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위기를 모면케 하셨던 것입니다(3-5절).

본 장의 후반부(6-12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히브리인이요 예전에 자신들을 대적했던 자임을 이유로 들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3-5절). 결국 아기스 왕은 블레셋 방백들과의 내분을 피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철군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참전할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겉으로나마 못내 아쉬워하며 다음날 새벽 일찍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동족과의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롬 8:28).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오니 인도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의 거주지 시글락은 아말렉에 의해 약탈당하게 됩니다(1-6절). 아말렉은 지난번 다윗이 그들을 침노하여 자기 종족을 진멸하고 약탈한 것에 대해(삼상 27:8,9)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 그의 군대가 거주지를 비운 사이에 약탈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시글락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팔기 위하여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지만 또 한번 엄청난 시련과 절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다윗이 저지른 살인(삼상 27:8-12)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시련과 절망 앞에 하나님을 다시금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6절).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물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7-20절).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됩니다. 다윗은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에 부착된 우림과 둠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쫓아가면 반드시 잃은 것들을 되찾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해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딤후 4:5).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삼상 13:9)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사울 왕가의 몰락(삼상 13:13,14; 15:23)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쫓기고 쫓기던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한편 사울은 거듭되는 패전과 불리한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의 군사가 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자 결국 자신의 병기든 자의 칼을 취하여 자살함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 왕가의 몰락이 성취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죽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그 시체가 유린을 당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사울 왕가의 몰락은 이방나라의 본을 따라 인본주의적 동기에 의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삼상 8:4-22)과 신정(神政) 왕국 이스라엘의 왕 된 자로서 신본주의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몰락은 선민 이스라엘이 신본적인 새 왕 다윗을 중심으로 신정 왕국 체제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그 역사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소서..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문안 인사(1-2절)와 함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3-14절). 먼저, 성부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보혈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 인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6,12,14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18절). 우리는 정결한 양심과 순결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 나가면서(요일 3:3)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능력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19절). 능력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죄인 됨과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고 믿음 안에서 큰 역사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후 12:9).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20-23절).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전반부(1-10절)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던 과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누리는 현재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의 의를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장의 후반부(11-22절)에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14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숭고한 사명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방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는 바울의 사명의식은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숙한 삶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순히 위로를 받거나 인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쁨의 찬송으로 채우며 자신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더욱 성숙하여 온전함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함으로써 죄악 된 세상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시대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세상을 능히 이기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때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 제목 / ① 교회와 사명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한 몸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7절) 은혜를 주시므로써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있는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하되 다른 직분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일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23-24)을 입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패한 언어와 행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 얻는 십자가 진리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과 순결한 삶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는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담대히 말하여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써 풍성한 삶의 열매로 결실하기를 바랍니다(딤후 3:16).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직분자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과 지혜, 복종과 조화 등의 가치들을 열거하면서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본 받으라는 것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 지체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받으라는 것은 사랑과 거룩함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빛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감으로써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성숙함과 신성함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보다 자기욕심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경외하는(33절)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종심을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성숙한 부부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관계정립과 직장에서의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윤리적 덕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2-3절).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지, 그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표와 동기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성도의 영적전쟁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12절). 사단은 강력하며 사악하며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10-20절).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엠피 6:19).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사울의 죽은 후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곧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제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울 왕의 악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선한 왕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백성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패배를 당하여 비참하게 쓰러진 것에 대한 슬픔과 의분으로 견딜 수 없어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및 그의 고달픈 망명생활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이런 반응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하였고 애가를 불러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원수에 대한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것처럼 애도한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관용하는 마음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전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기에 처여 있었고 다윗은 아직 남쪽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때 더욱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왔으며 그의 세력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대상12:22). 그러나 다윗은 결코 선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습니다(1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가장 탁월한 모습입니다.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록이 세 번 더 나옵니다(5:19, 23:2-13). 갯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도록 합니다(마 26:39).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의지를 고집하고 살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1절, 창 35:1) 헤브론은 다윗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성읍으로 유다 족속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헤브론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창 13:18) 신령한 곳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던 영적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1절)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17-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일이 자기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스보셋과의 불화(6-11절), 다윗과의 협상(12-21절)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그런 교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처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를 꾀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과 목적달성을 위해 교만하게 행동한 아브넬은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27, 31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바탕을 둔 신중한 말과 행동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정국의 혼란은 결국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 이스보셋이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됨으로써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점점 약화되어 가던 사울왕가는 급격히 쇠퇴하고 급기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몰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에 대하여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 나타난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조적인 모습은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브넬의 죽음과 이것으로 말미암는 급격한 혼란에 직면한 이스보셋은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1절)라는 말씀은 그가 아브넬을 얼마나 의지하였으며 아브넬의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과 환경과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은 홀연히 멸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사람을 의지한 이스보셋의 현저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의지하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 진정한 평화와 승리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시61:3).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이 사울 일가와 의 오랜 내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끝으로 사울 일가의 종말을 보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1-5절). 다윗은 왕으로 추대된 후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여부스 족속을 격멸시키고 그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고 다윗 성이라 명하고 그 곳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6-16절). 한편 다윗의 즉위 소식을 들은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다윗에 의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17-25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실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19절). 다윗은 무슨 일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10절).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께 매어달리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렘 33:3)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바알레유다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므로 베레스 옷사가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옷사가 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오벧에돔의 집에 3개월간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11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법궤를 모셔오기로 작정하여 이번에는 소를 쓰지 않고 채로 메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였음에 있음을 알게 되자, 말씀대로 행하여서 무사히 법궤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재주나 방법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하겠고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보여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에 감사드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통일 왕국을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놓은 다윗은 정치 고문격인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에 관해서 의논을 합니다. 나단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여 찬성을 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중지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5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지만 언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한 일이 있었느냐? 나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며 때가 되면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5-13절 참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과 28장 3절에서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좋게 보셨고, 비록 그 소원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과 그의 집에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성을 두고 충성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을 돌보는 일, 명예와 권세 등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소홀 한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봉사와 헌신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며 백성에게 공의와 정도를 걷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방의 적을 정복하여 나갈 때에 계속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그 군대의 강성함과 그의 지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 사실 그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기도와 고통스런 투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므로 연전연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곤경에 빠지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 힘을 얻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그의 통치가 이스라엘 전국에 미치고 있으며, 그의 통치가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혜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승리를 얻은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나의 경험, 나의 연줄이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 내전을 통해 새로 왕이 된 자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전왕의 일족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으나 다윗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기억하여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부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를 데려와 사울의 영토를 그에게 주고 자신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1-8절). 또한 그에게 종을 주고 시바로 하여금 온 가족이 므비보셋을 섬기도록 명하였습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지만 다윗은 그를 후대하고 왕자와 같이 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 받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예배나 기도나 찬양만을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대방이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 주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고하며 형제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값없이 피 흘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윗은 이제 암몬, 모압 동맹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삼하 8장에 나타난 정복 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 전쟁은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이 먼저 다윗에게 대항함으로써 발발하였습니다. 암몬 왕이 죽자 다윗은 진심으로 조문 사절을 보내었으나 하눈은 다윗의 진실을 왜곡하고 의심하여 조문 사절을 모욕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후에 하눈은 다윗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용병을 규합하고 먼저 전쟁을 벌였으나(1-8절), 다윗이 파견한 요압 군대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9-14절). 1차 전투에서 패한 아람 군대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에 임했으나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이끈 군대에 의해 격파당하고 말았습니다(15-19절).

진심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낸 다윗의 호의를 무시한 하눈은 결국 다윗에 의해 격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의 당연한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호의를 의심하고 불신하며 오히려 악으로 갚는 자는 결국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믿음을 깨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신의 풍조가 오늘날 세상과 교회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남의 진심에 대해 언제나 성실한 자세로 대해야 하며, 서로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순전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에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이에게 진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왕궁에 남은 다윗은 마침 목욕하던 밋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였습니다(1-5절). 그 후에 밋세바가 잉태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전장에 나간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동침케 하지만 우리아가 이를 거절하자(6-13절),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전장에서 전사하도록 명하였습니다(14-21절).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사하였고, 다윗은 밋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22-27절). 이 말씀은 다윗 역시 나약한 죄인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압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철저히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었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심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는 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명령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먼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인간관계나 정에 이끌려 나아가는 것과 자신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밋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셨습니다(1-12절).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범죄에 대한 징벌로 밋세바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13-25절).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 된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를 구하여 죄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로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해 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당장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에 대해 경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즉각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죄의 결과로 다윗 가문에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하였고 때마침 이를 알게 된 친구 요나답의 간계로 암논은 다말을 유인하여 강간하게 됩니다(1-14절).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에 그녀를 미워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은밀한 중에 복수를 도모하게 되고(15-22절), 이 년 후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고는 미리 계획한 대로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23-29절). 죄는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불행을 가져다주었던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이복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암논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죄를 짓는 데는 요나답이란 간사한 친구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진실한 믿음의 친구를 사귀으로써 역경을 벗어날 수 있었고, 암논은 친구를 잘못 사귀므로 장자로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사귀에 신중해야 판단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친구들을 사귀다면 그로 인해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이 하루도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 ○ ○ ○ ○ ○ ○ ○ ○ ○

그리스도의 탄생

▲ 찬송/ 416장(하나님은 외아들을) ▲ 본문/ 눅 2:1-7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번 설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크게 변질되고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요란한 축제로 변해 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며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1절: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로마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② 4절: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호적을 하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③ 5절: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던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 요셉과 ○○ 한 상태

* 이미 ○○ 된 상태

④ 7절: 마리아는 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눕혔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그리스도의 탄생」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하나님의 관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빈칸에 적절한 말을 기록하십시오(요 1:2 ; 요 1:14).

답) 그리스도의 탄생은 태초부터 ○○○ 과 함께 계시던 ○○ 이 ○○ 이 되어 ○○ 가운데 거하시게 된 놀라운 사건이다.

② '인간의 관점'의 단락을 읽고...

질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빈 칸에 알맞은 말을 기록하십시오.

답) 탄생 시점 :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통치하던 때(눅 2:1)

탄생의 통로가 된 사람들 : ○○ 과 ○○○ 를 통해서(눅 24:5)

탄생 마을 : ○○○○ 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눅 24)

탄생 장소 : ○○ (눅 27)

③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한 세상'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대제사장들, 왕들, 고관대작들 ➔ _____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 목자들 ➔ _____

④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전 8:9)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답)

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설교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며...

질문)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낸 크리스마스 절기는 언제였고, 왜 그 때가 가장 의미 있었는지 서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이번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신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성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한 기록과 인간의 관점(역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한 기록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 나하고 선물 교환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1. 감사 / 죄로 인하여 죽어 있고 여러 가지 비참함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 간구 /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더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2 과 ○ ○ ● ● ● ● ● ●

동방 박사

♣ 찬송/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본문/ 마 2:1-11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진실한 경배와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교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회생을 치르며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또 얼마나 극진히 아기 예수께 경배했으며
또 얼마나 귀한 예물을 바쳤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점검해 보고
연약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경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마태복음 2장 1-11절 말씀을 읽고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 ① 2절: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다음 중 어떤 분으로 알고 찾아갔습니까? 아래에서 골라 보십시오.

인기 있는 정치가 뛰어난 선지자 유대인의 왕
로마를 정복할 임금

- 3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은 동방 박사들의 그러한 질문을 듣고 왜 크게 소동했을까요?

- ② 4-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 ○○○○에 태어나실 것과 장차 이스라엘의 ○○가 되실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 ③ 7-8절: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 달라' 라고 부탁한 헤롯의 실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 ④ 11절: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 엎드려 아기께 ○○ 하고 보배함을 열어 ○○ 과 ○○ 과 ○○ 을
예물로 드리니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동방 박사」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동방의 박사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온 과정을 순서대로 말해 보십시오.

- 답) ㉠ 동방에서 별을 발견함 ㉡ 헤롯 왕을 만남
 ㉢ 별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따름
 ㉣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도착함
 ㉤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음

순서) ➡ ➡ ➡ ➡

② '경배'의 단락을 읽고...

질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

③ '헌신'의 단락을 읽고...

질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

④ '세상을 상징하는 헤롯'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한 헤롯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답)

-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심 ○○ 있었다.
- 하지만 자신의 ○○를 메시아에게 선뜻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 그래서 메시아를 은밀히 ○○하기를 원했고 ○○○○들을 속였다.

⑤ '동방 박사들에게서 본받을 점'의 단락을 읽고...

질문)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을 한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이 받은 감동을 말해 보십시오.

답)

⑥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에는 이렇게 보내야 겠
다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서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
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15:5). 이렇게 말씀하심은 장차 아브라
함에게 복을 주사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계획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
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
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벧후 1:19).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계 22:16). 아멘. 동방 박
사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 때 그들은 별에 대해서 단순히 말을 주고 받
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그 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
다. 그들은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가 자신들이 유대 땅에 온 목적을 밝히며
중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
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바로 이것이 크리
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크
리스마스 절기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동방 박사
들처럼 그 별을 따라가십시오. 메시아에게 집중하십시오. 헤롯 왕과 대제
사장들처럼 메시아에 관하여 단순히 말만 하고 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

오, 그들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요란하게 말다툼만 했을 뿐,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만왕의 왕께 경배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그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기도

1. 감사 /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바르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헌신케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코린

제 3 과 ●●●●●●●●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 찬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 본문/ 눅 1:30-33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무리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교는 천사들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것을
비교 설명하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복된 소식을 믿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점검해 보고,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우리 마음에 더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누가복음 1장 30-33절을 읽은 후에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30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가져온 것은 누구였습니까?

② 31절: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을 낳으리니”

③ 31-32절: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④ 32-33절: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노릇하실 것이며 그 ○○가 무궁하리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① '사가랴에게 전해진 소식'과 '사가랴의 반응'의 두 단락을 읽고...

질문) 사가랴에게 전해진 소식과 그것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과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적어 보십시오.

답)

· 사가랴에게 전해진 소식

· 사가랴의 반응

· 그 결과

②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의 단락을 읽고...

질문) 천사를 통해 전해진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답)

③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적어보십시오(마 12:1, 요 12:47).

답)

- 자기()을 저희()에서()하시려고 오셨다.
- 세상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

보기 ㉠ 구원 ㉡ 죄 ㉢ 소망 ㉣ 인도 ㉤ 심판
 ㉥ 백성 ㉦ 나라 ㉧ 창조 ㉨ 질병

④ '영원히 왕노릇 하시려 오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답)

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의 단락을 읽고...

질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연약한 처녀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의 방식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에는 우리의 ○○를 뛰어넘는 신비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을 받게 됩니다.

⑥ '믿음으로의 초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찍부터 예언했고,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전해진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그 예언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방식이 불완전하고 영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1. 감사 /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주와 왕으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로 서며 복음의 진리를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한글 맞춤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글의 표기방법을 통일하고, 한글의 표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글 표기법

제2조 (한글 표기법) 한글의 표기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한글의 표기법은 한글의 표기법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2. 한글의 표기법은 한글의 표기법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3조 (한글 표기법) 한글의 표기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한글의 표기법은 한글의 표기법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2. 한글의 표기법은 한글의 표기법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 (한글 표기법) 한글의 표기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한글 표기법) 한글의 표기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 (한글 표기법) 한글의 표기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한글 표기법) 한글의 표기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한글 표기법) 한글의 표기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한글 표기법) 한글의 표기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 4과 ●●●●●●●●

통치하시는 하나님

● 찬송/ 490장(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 본문/ 출 4:22-31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와 아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복됨을 생각해보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출애굽기 4장 22-31절을 읽고 난 후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 ① 22-23절: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요약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내 ○○ 라 내 이들을 놓아서 나를 ○○○ 하라"
- ② 24-25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시려고 하셨을 때, 심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 를 베어 ○○ 의 발 앞에 던졌다
- ③ 28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준 두 가지를 아래에서 골라 보십시오.
㉠ 여호와께서 부탁하신 모든 말씀
㉡ 여호와께서 아굽에게 하신 약속
㉢ 모세가 앞으로 하고 싶은 놀라운 일들
㉣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이적
- ④ 31절: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됩니까?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답)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고 · 절대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②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양을 치는 ○○에 불과한 ○○를 자신의 사신으로 애굽 왕 바로에

게 보내는 것

역대: 습득: 융성

③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지 말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

④ '하나님의 일을 말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모세와 아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만을 서로 말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

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답) · 예수 그리스도께서 ○○○ 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진리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 이시라는 진리

· 예수 그리스도께서 ○○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사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 하신 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⑥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기억하면서...

질문)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한 두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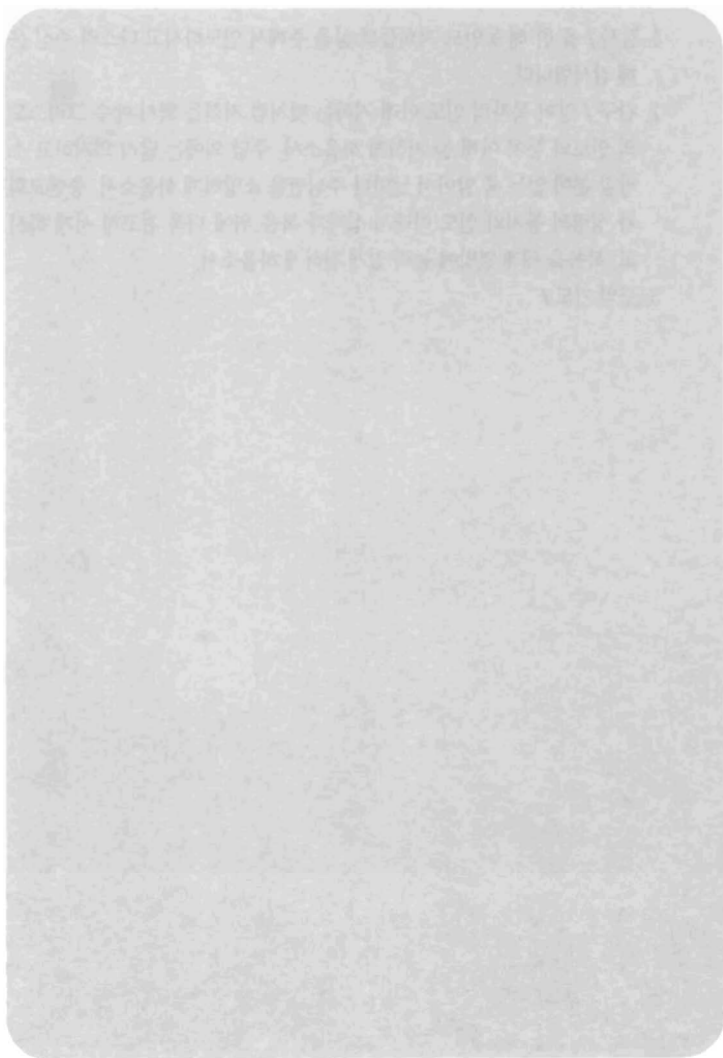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이 가져오는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값없이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흰 옷을 입고 설 것이며 영원히 빛나는 밝고 찬란한 집에서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한동안 버려진 사람들처럼 외로운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지않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혹시 여러분은 낙심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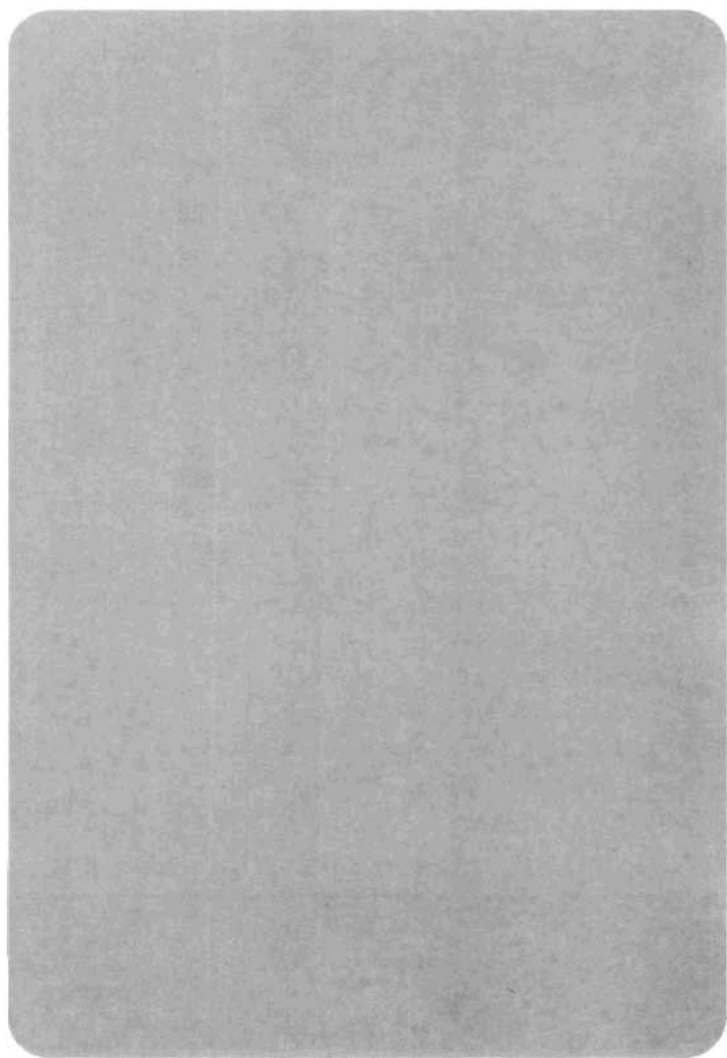
기도

1. 감사 /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 간구 / 양이 목자의 인도 아래 거하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통치 아래 늘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외에는 달리 의지하고 소망할 분이 없는 줄 알아서 날마다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총현교회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 아래서 십자가 복음 위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을 세계 열방에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매화지나물		
기도		다같이
찬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자랑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와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12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조규호(1-7일), 이재영(8-14일), 이성진(15-22일),
최성규 (23-31일) 목사

· 구약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